

# 하늘을 뜰어 올린 나무의 신과 숲의 신과 마우이 이야기

글 | 신현배  
시인 · 아동문학가

남태평양의 섬나라인 뉴질랜드의 원주민 마오리족 신화에 따르면, 태초에 이 세상에는 하늘의 신인 랑기타 땅의 여신인 파파라 있었습니 다. 랑기타 파파는 결혼하여 자식을 낳았는데, 바람의 신 타휘리마테아, 숲의 신 타네마후타, 전쟁의 신 투마타우엡가, 농경의 신 훙고따타 네, 나무의 신 후미아티키티키, 바다의 신 탕가 료아 등 열일곱 명이었습니다.

랑기타 파파는 서로를 끈찍이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꼭 껴안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고통스러운 것은 자식들이었습니다. 하늘과 땅이 붙어서 떨어지지 않으니 자라지도 못하고 어둠 속에 갇혀 지내야 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전쟁의 신 투마타우엡가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땡땡해서 못 살겠어. 캄캄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 게다가 자랄 수도 없으니 원. 우리가 살려면 하늘을 없애야 해.”

농경의 신 훙고따타네가 소리쳤습니다.

“뭐야? 그걸 뭤이라고 하니? 하늘은 우리를 세상에 태어나게 해 주신 아버지야. 그런데 어떻게 하늘을 죽여?”

그 때 숲의 신 타네마후타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래, 뽕은 뭤이야. 하늘을 죽이지 말고 땅에서 떼어 놓자. 그렇게 하면 우리가 자라고 놀 수 있는 공간이 생길 거야.”

다른 형제 신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거 좋은 생각이네. 우리는 어머니의 사랑을 받으며 자라야 하니 땅은 밑에 두고, 아버지인 하늘은 위에 두자는 거잖아.”

“그렇지. 그 방법이 가장 좋겠다.”

조용히 듣고 있던 바람의 신 타휘리마테아가 갑자기 썩 소리를 질렀습니다.

“좋은 뭐가 좋아! 너희들은 아버지나 어머니를 갈라놓을 생각을 하니? 서로 좋아서 저렇게 꼭 껴안고 있는데 하늘과 땅을 갈라놓아? 그러다 저 받는다.”

바람의 신 타휘리마테아는 숲의 신 타네마후타가 내놓은 의견에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나 다른 형제 신들은 바람의 신이 하는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하늘과 땅을 떼어 놓기로 결정해 버린 것입니다.

“잘 보라고. 내가 하늘과 땅을 떼어 놓을 테니 뭤이야.”

이렇게 큰소리치며 앞으로 나선 것은 농경의 신 훙고따타네였습니다. 그는 하늘을 위로 올리려고 걸 먹던 힘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겨우 풀이 자라나는 높이만큼 떼어 놓았을 뿐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바다의 신 탕가료아가 나섰습니다.

“이쥌이야 식은 죽 먹기지.”

바다의 신도 큰소리치며 달려들었지만, 파도치는 높이만큼 떼어 놓고 물러섰습니다.

나무의 신 후미아티키티키가 뒤이어 나섰습니다.

“힘깨나 쓰는 내가 들어 올려 볼까?”

나무의 신은 하늘을 들어 올리려고 팔에 힘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나무가 자라나는 높이만큼 들어 올리는 데 그쳤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선 것은 숲의 신 타네마후타였습니다. 그는 다른 형제 신들보다 힘도 좋고 머리도 좋았습니다. 머리를 땅에 박고 뭉구나무를 서더니, 하늘을 힘껏 들어 올렸습니다. 그러자 하늘과 땅이 엄청나게 벌어졌습니다. 그리하여 오늘날처럼 하늘이 허공에 높이 걸리게 되었답니다.

이렇게 하늘과 땅을 떼어 놓으니 형제 신들은 살 것 같았습니다. 어둡던 세상에 빛이 들어와 아주 밝아졌으니 말입니다. 그리고 넓은 공간이 생겨 식물과 동물과 사냥이 어우러져 편안히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신 앙기타 땅의 여신 파파랏은 슬픔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뜨겁게 사랑하면서도 멀리 떨어져 살아야 하니 말입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은 지금도 서로를 그리워하며 눈물을 흘리는데, 사람들은 이것을 비 또는 이슬이라고 부릅니다.

뉴지랜드 마오리족 신화에는, 하늘과 땅을 떼어 놓은 것은 '마우이' 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마우이는 바다의 신 탕가호아와 인간 여자가 격혼해 낳은 아들인데 험자랑하기를 좋아했습니다.

하루는 마우이가 터덕터덕 길을 가는데, 어떤 아가씨가 땅을 뽀뽀 훑리며 하늘을 들어 욕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엔 해도 하늘은 땅에 낮게 내려와 있었습니다. 아가씨는 하늘을 번쩍 들어 욕하지 못했습니다. 힘이 모자라 하늘을 들어 욕하기는커녕 그 무게에 눌려 찌찌매고 있었습니다. 마우이는 이 광경을 보고 묵었습니다.

"아가씨, 왜 하늘을 들어 욕하려는 거죠?"

"보시다시피 제가 아주 키가 크잖아요. 할 일이 많아서 빨리 집에 가야 하는데, 하늘이 낮게 내려와 길을 가는데 방해가 되네요."

"하늘을 들어 욕하는 일은 나한테 맡기시죠. 이 내태도 내가 바다의 신 탕가호아의 아들이라서 힘이 세거든요. 저 바위쫘는 손가락 하나도 들어 욕할 수 있어요."

마우이가 길가의 바위를 가리키며 써기듯이 말하자, 아가씨는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허풍 떨지 말아요. 저 큰 바위를 어떻게 손가락 하나로 들어 욕해요?"

"내 말을 믿지 않네. 좋아요, 내가 얼마나 힘이 센지 보여 주지."

마우이는 바위 앞에 서더니 손가락 하나로 바위를 번쩍 들어 욕했습니다. 아가씨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어때요? 이제는 내 말을 믿을 수 있겠죠?"

아가씨는 대담 대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가씨, 한 가지 제약을 하지요. 당신이 나한테 결혼한다면 하늘을 들어 욕해 주지요."

아가씨가 좋다고 하여 마우이는 하늘을 힘껏 들어 욕했습니다. 그리하여 하늘은 땅에서 멀리

떨어지게 되었고 아가씨는 마우이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마우이는 바다의 신 탕가호아의 아들이지만, 인간 여자를 어머니로 두어서 인간들을 몹시 사랑했습니다. 그는 육지에 살면서 인간들을 위해 좋은 일을 많이 했습니다. 앞서 소개한 대로 하늘과 땅을 떼어 놓았는가 하면, 인간에게 꼭 필요한 불을 지하 세계에서 불을 지키는 여신에게서 훔쳐 가져다주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마우이는 평소애 알고 지내던 사람에게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낮이 너무 짧아서 몹시 불편해. 일을 시작하면 곧 날이 저뭍어 버리니……"

낮이 짧은 것은 태양신인 '타'가 하늘을 빨리 지나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우이는 그를 붙잡아 하늘을 천천히 지나가게 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마우이에게는 형이 넷이나 있었습니다. 마우이는 형들을 설득하여 함께 그를 붙잡으려고 '후아오테라'로 갔습니다. 후아오테라는 하늘을 지나온 태양신 그가 밤새 머무는 굴이었습니다. 마우이 형제는 굴은 밝숙한 용가리를 만들어 굴 앞에 쳐 놓고 밤을 꼬박 새웠습니다. 아침이 되자 그는 하늘을 향해 출발하려고 굴에서 나왔습니다. 바로 그때 마우이가 형들에게 소리쳤습니다.

"기러야! 밝숙을 잡아당겨!"

형들이 재빨리 밝숙을 잡아당겼습니다. 그래서 그가 용가리에 걸렸습니다. 마우이는 그를 공격하려고 '무칼랑가의 턱뼈'를 손에 쥔 채 그를 향해 뛰어나갔습니다. 무칼랑가의 턱뼈는 자기 할머니인 무칼랑가에게 받은 것으로, 무엇이든 때려눕힐 수 있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러나 마우이는 달 쫓던 개가 되어 버렸습니다. 용가리가 굵세 타 버려, 그는 아무런 지름도 없는 듯 하늘로 날아올랐기 때문입니다. 마우이는 땅을 치며 후회했습니다.

"나를 붙잡을 수 있었는데 아깝네. 마른 밝숙 가지고는 안 되겠어. 젖은 녹색 아라곤 끈 밝숙한 용가리를 만들어야겠어."

마우이는 젖은 녹색 아라곤 끈 밝숙한 용가리를 만들어, 며칠 뒤 형들과 함께 또 후아오테라로 갔습니다. 그리고 굴 앞에 용가리를 쳐 놓고 아침이 되기를 기다렸습니다. 이윽고 아침이 되자 그는 하늘을 향해 출발하려고 굴에서 나왔습니다. 그 순간, 마우이가 형들에게 소리쳤습니다.

“뱃죽을 잤아당겨!”

형들이 잤싸게 뱃죽을 잤아당겼습니다. 그래서 나가 욕가리에 걸렸습니 다. 이번 뱃죽은 마은 뱃죽이 아니라 적은 녹색 아미르 곤 뱃죽이어서, 나는 욕가리를 태우고 달아날 수가 없었습니다.

마우이는 나를 향해 무칼랑가의 턱뼈를 휘둘렀 습니다. 그러자 나는 공격을 당하여 소리쳤습니 다.

“이게 무슨 짓이냐? 너희들이 갓히 이 ‘타마누 이테라’를 죽이려고 해?”

태양신 나의 진짜 이름이 무엇인지는 그 때까 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번 일로 해서 그의 진짜 이름이 ‘타마누이테라’라는 것이 세 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마우이는 무칼랑가의 턱뼈로 나를 때려눕혔습 니다. 잠시 뒤 정신을 차리자 마우이가 말했습 니다.

“내가 시키는 대로 하겠냐? 이제 하늘을 느릿느 릿 지나가라. 그런 죽이지 않고 풀어주지.”

“야, 약속할게.”

마우이는 나에게 약속을 받아 내자 그를 풀어 주었습니다.

그 날부터 나는 하늘을 천천히 지나갔습니다. 그리하여 태양이 오대 머물러 낮 시간이 길어 진 덕에, 인간들은 사냥과 농사일 등을 여유 있 게 할 수 있었습니다.

마우이는 인간들을 몹시 사랑한다고 했지 않나? 그런데 그 인간들이 영원히 살지 못하고 죽어 버 리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인간들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는 없을까?’ 마우이는 골똘히 생각해 보았지만 그 방법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탕가르아를 찾아가 그 방법을 물었습니다. 탕가르아는 마우 이를 뚫고러머 바라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 니다.

“인간들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살려면 죽음의 여 신인 히네누이테포와 싸워 이겨야 한다. 하지만 그가 무척 강하기 때문에 그를 이기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히네누이테포가 어디에 있건?”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에 있지. 지평선을 자 세히 살펴보면 영겁다 단했다 하는 듯한 선광 이 보이는데, 그게 죽음의 여신의 눈빛이다. 그 는 상어 입에 해조 머리카락, 흑연암 같은 날카 른 이빨을 지니고 있지. 네 힘으로는 절대 그를 이길 수 없으니 싸움 생각을 하지 마라.”

마우이는 아버지의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 니다. 그는 무슨 수를 쓰든지 히네누이테포를 물리쳐 인간들을 죽음에서 해방시키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마우이는 무칼랑가의 턱뼈를 들고 히네이누이 테포를 찾아 길을 떠났습니다. 그는 숲속에 사 는 새들과 친했는데, 새들이 마우이를 응원하겠 데여 그를 따라 나섰습니다.

“마우이, 기운을 내. 너는 히네누이테포를 이길 수 있어.”

“그래, 그래. 무칼랑가의 턱뼈가 있으니 죽음의 여신도 한 방에 때려눕힐걸.”

새들은 쉼 새 없이 조장거리며 마우이를 격려 했습니다. 마우이를 응원하느라 노래도 들려주 어 그를 기쁘게 해 주었습니다. 마우이는 하늘 과 땅이 만나는 곳에 다다르자 새들에게 말했 습니다.

“쉿! 조용히 해. 죽음의 여신이 잠든 곳이야.”

마우이는 떠나오기 전에 태양신 나를 뺐습니 다. 나는 마우이에게 히네누이테포를 이길 방법 을 가르쳐 줬는데, 히네누이테포가 잠든 것을 때 그 뚫속을 통과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우이는 새들에게 조용히 하라 이르고 죽음의 여신을 향해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히네누이테포는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밤에 일하고 낮에는 잠을 자기에, 당시에 사람 들은 죽음의 여신이 일하는 밤에만 죽고 낮에 는 죽지 않았습니다.

마우이는 히네누이테포의 뚫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옷을 훌훌 벗었습니다. 그리고 무칼랑가의 턱뼈를 손에 천 채 히네누이테포의 커다란 입 안으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그 때 갑자기 큰 웃음소리가 터졌습니다. 할라 새였습니다.

“호호호! 마우이 쫌 반. 발가벗은 채 히네누이 테포의 입 안으로 들어가네. 아이, 우스워나.” 그 웃음소리에 히네누이테포가 잠에서 깨어났 습니다.

“이놈 반나. 겁도 없이 내 입 안으로 들어와?”

히네누이테포는 날카로운 이빨로 마우이를 씹 어 삼켜 버렸습니다. 이리하여 마우이는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그 뒤부터 죽음의 여신 히네 누이테포는 밤이건 낮이건 잠을 지지 않았습니 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아 무 때나 죽게 되었다고 합니다.